

Part 4 — Q&A

4월 4주차 Q&A — 방산업계의 미래 전망 & 역사적 위기 속 주가 흐름의 차이

· 정리 2026-05-22

방산의 미래 & 위기별 금값 차이

Q&A 4월 4주차 (2026-04-27, parent: Part 4-2강). 두 질문에 강사가 답한다.

Q1 (노래하는 악어님) — 신냉전 시대 방산업계 미래를 투자·이직·국제정세 3 관점으로 정리. **Q2 (프린캡스님)** — 1973·79 스태그에는 금값 조정 없이 슈팅, 2008·2020 침체에는 먼저 급락 후 회복. 왜 정반대?

강사는 산업 자체 = 확신, 투자 = 신중, 이직 = 적극 시각을 정리하고, 위기의 종류별 금값 패턴 메커니즘을 짚는다.

100배 가성비 차이

이란 드론 3,000만원 vs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40~50억. 비대칭 전력 시대에 K-방산이 구조적 우위를 갖는 핵심 이유.

좋은 산업이면 무조건 좋은 투자인가? — 강사 답: 닷컴 버블 시 아마존도 20분의 1 토막 났다. 좋은 산업과 좋은 투자는 다르다.

1. 도입 — 두 질문

Q&A 4월 4주차 (2026-04-27, parent: Part 4-2강). 두 분 질문에 강사가 답한다.

Q1 (노래하는 악어님) — 신냉전 시대 방산업계의 미래. 투자·이직·국제정세 3 관점으로 정리해 달라.

Q2 (프린캡스님) — 1973·79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금값이 조정도 없이 2~3배 슈팅했는데, 2008·2020 경기 침체 때는 왜 먼저 급락하고 나중에 회복했나? 거시경제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다.

강사 강조 — 본 회차는 정보 제공이고 특정 종목 매수·매도 권유 아니다. 강사 본인은 가족 연관자가 있어 방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못한다.

2. 세계화 종료 — 안보 = 경제

강사 답 — 방산업계 미래에 강력하게 동의한다.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모두 목격했다. 세계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.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인 세상.

냉전 종식 이후 30년: 자유무역·국제공조, 군비 축소 → 복지·성장 투자, 효율성 최우선, 상호 의존, 평화·번영 시대.

지금: 신냉전 블록화. 미·중 패권 전쟁 구조화, 경제 블록화·자원 무기화, **안보 = 국가 생존**, 나토 재무장·동아시아 긴장, 무기 = **필수 소비재**.

곳곳에서 전쟁이 나니까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. 미국 항공모함 11척 중 사실상 5척만 가동 가능 (3척 이란 묶임, 1척 불나 정비). 동아시아 안보 불안 ↑ → 자국 안보는 자기가 지킨다.

■ 세계화 시대 vs 신냉전 블록화

구분	냉전 종식 후 30년	지금 (신냉전)
통상	자유무역 + 국제공조	미·중 패권 전쟁 구조화
국방	군비 축소 → 복지	경제 블록화 + 자원 무기화
우선	효율성	안보 = 국가 생존
무기	선택적 소비	필수 소비재

3. 글로벌 군비 폭증 — 사상 최대 + 더 온다

국방비를 얼마나 쓰고 있나? **2023년 이미 \$2.4조 돌파 (사상 최대)**. 2024·25는 글로벌 통계 미발표지만 **\$3조 돌파 100% 확실**. 2025~30 연평균 성장률 **5%+**.

한국 2025 국방 예산 **66조 원**. 냉전 종식 후 30년의 군비 축소 시대가 완전히 역전됐다. **일시적 이벤트 X 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구조적 변화**.

자국의 안보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고, 이 과정에서 **새로운 방위산업 사이클**이 시작됐다.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.

4. K-방산 4 구조 우위 — 자유진영 병기창

왜 한국 방위산업이 중요한가? 자유 진영 기준 소련 붕괴 후 방위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계속 육성한 나라는 **미국·이스라엘·한국뿐**. 나머지는 평화에 젖어 R&D 거의 안 했다.

- ① **납기 압도** 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일본 납품 2030 약속 → 2040으로 연기. 한국은 정확한 납기.
- ② **가성비 (비대칭 전력)** — 이란 드론 **3,000만원** vs 미국 패트리엇 **40~50억**. **100배 차이**. 미국이 비싼 무기로 이란 드론 막는 비효율. 한국 천궁이 중동 인기.
- ③ **미국 규격 호환** — 한미 동맹 + 나토 체계 호환. 미국 중심 무기 체계에 맞아 다른 나라가 한국산을 사도 사용 가능.
- ④ **실전 검증** — 북한 위협으로 한국 무기는 시험 완료. 독일 자주포 사례 — 1945 이래 실전 X. 우크라 전쟁 시 50발 쏘야 할 걸 500발 쏘니 **포신 녹아 발사 불가**.

K-방산 4 구조 우위

우위	구체
납기	미 패트리엇 일본 2030→2040 연기. 한국은 정확
가성비	이란 드론 3천만원 vs 패트리엇 40~50억 = 100배
미 규격 호환	한미 동맹 + 나토 체계와 호환. 미국 무기 대 체
실전 검증	독일 자주포 우크라전 포신 녹아 발사 불가

5. K-방산 실적 — 숫자가 말한다

빅4 수주 잔고 **130조 원** (4~5년치 안정적 매출 확보). 2024 수출 목표 **\$200억** (세계 방산 수출 강국 도약). **2026 영업이익 전망 6조+** (빅4 합산).

빅4: 한화에어로스페이스 / 현대로템 / LIG넥스원 / KAI.

핵심 혁신 — 차세대 전투기 KF-21 보라매 / K2 흑표 (폴란드 수출) / K9 자주포 (압도 성능·가성비) / 천궁-II (중동 수출 급증) / FA-50 (동남아·유럽).

ESG 관점 — 무기 팔아 돈 번다 = 좀 찜찜할 수도. 그러나 공격 산업 X, 방위산업이다. 미국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지만, 한국은 '방위·세계 평화' 이미지 메이킹 필요.

6. 좋은 산업 ≠ 좋은 투자

산업 관점에서 본 거고, 투자 관점에서는 한 가지 문제. **좋은 산업이 무조건 좋은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.**

닷컴 버블 사례 — 아마존이 나빠서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난 게 아니다. 그 대단한 기업들의 주가가 전부 10분의 1, 20분의 1 토막 났는데, 왜? **이미 주가가 너무 고평가였다.** 자기 가치까지 떨어지려면 5분의 1 토막이면 되는데, 시장은 깜짝 놀라면 20분의 1 토막까지 가버린다.

지금 방산은 주가가 이미 1~2년 앞서 갔다. 정권 교체·정책 리스크, 휴전 논의 시 단기 급락 등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 방위산업은 그 나라 정권과 항상 연결돼 있다.

장기 관점 (10~20년) — 미국 패권이 다시 단일 패권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방위산업 사이즈는 계속 커진다.

■ 방산 투자 — 장점 vs 위험

장점	위험
수주 가시성 ↑, 4~5년 매출 확보	이미 많이 오른 주가
정부 정책 드라이브	정권 교체·정책 리스크
10년 이상 구조적 수혜	휴전 논의 시 단기 급락
포트폴리오 헤지 역할	ESG 선별 - 글로벌 자금 이탈

7. 방산 투자 전략 — 강사 명시

강사 명시 권고 — 단기 과열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절대 안 된다. 주가가 이미 2년 정도를 앞서갔으므로 조정 올 수 있다.

분할 매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.

오히려 악재 (휴전·종전) 시 더 집중적으로 모으는 게 좋은 전략. 방위산업의 악재가 국제정세로는 호재인 경우가 많다.

방위산업의 주가는 이미 2년 정도를 앞서갔기 때문에 2년 뒤 성장을 이미 다 주가에서 반영했다. 투자는 조금 주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, 10년 뒤·20년 뒤에도 방위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.

8. 이직·커리어 — 적극적으로

강사 명시 — **이직도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.** 방위산업 급팽창으로 인력 수요 폭발 중. 새로 뜨는 분야에 지금부터 이직해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.

왜 지금인가 — K-방산 수출 급증, 해외 영업·마케팅 인력 태부족, 정부 정책 드라이브 신규 투자, 향후 10년 이상 구조적 성장, 고용 안정성·처우 ↑.

어떤 분야가 뜨는가 — 드론·AI·무인체계 / 레이더·센서·C4I / 우주 위성·항공 / SW·SW 보안 / 국제계약·수출 영업.

무기 체계가 비대칭 전력을 맞이하면서 송두리째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운 무기 체계로 옮긴다는 점에서도 유리. 인력난이라 스카우트할 때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다.

■ 이직 — 왜 지금 + 뜨는 분야

왜 지금인가	뜨는 분야
K-방산 수출 급증 → 인력 수요 폭발	드론·AI·무인체계
해외 영업·마케팅 태부족	레이더·센서·C4I
정부 정책 드라이브 신규 투자	우주 위성·항공
10년+ 구조적 성장	SW·SW 보안

9. 결론 — 관점별 접근

방산업에 대해 다시 한 번 — **산업 자체는 확신**. 국제정세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. 미국 단일 패권 경찰 국가 역할은 끝났고, 미·중 패권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국제정세 불안은 계속. **보통 20~30년 지속**.

투자는 신중 — 방위산업 주가가 이미 2~3년 치를 선반영. 구조적 상승이 맞다 하더라도 분할 또는 장기 보유. 악재 시 집중 매수가 더 좋은 전략.

이직·커리어는 적극 — 인력 수요 폭발 중, 지금이 최적 타이밍. AI·무인체계 특히 유망.

■ 관점별 결론

관점	결론
국제정세	확신 — 갈등·블록화 최소 10년 지속
투자	신중 — 주가 선반영. 분할 또는 장기 보유
이직·커리어	적극 — 지금이 최적 타이밍

10. Q2 — 같은 위기, 다른 금값

두 번째 질문 (프린캡스님) — 1973·79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금값이 조정도 없이 2~3배 슈팅. 2008·2020 경기 침체 때는 먼저 급락하고 나중에 회복. 왜 정반대인가?

같은 위기 같지만 위기의 방향성이 달랐다. 1970년대 오일 파동 위기 vs 2008·2020 경기 침체 위기.

짚고 갈 점 — 사실 1973년에도 전쟁 직후 **35일간 금값 떨어지고 주가 올랐다**. 35일 후 금값 반등 시작. 지금 시각으로 보면 10년 24배 슈팅에 묻혀 안 보이지만, 그때 투자자들은 속이 탔다.

이번 이란 전쟁도 비슷 — 중동 전쟁 시 유가 급등 → 달러 사재기 → 달러 강세 → 금값 초기 하락.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달러 조정 → 그때부터 금값 상승.

11. 위기의 종류가 달랐다 — 메커니즘

핵심 차이 — 위기의 종류.

스태그플레이션 때 (1970s) — 내 돈이 녹아내린다. 현금을 빨리 실물로 바꿔야 한다는 조바심. 금
즉시 매수세 폭발 → 10년 24배.

경기 침체 때 (2008·2020) — 지금 당장 먹고살 현금이 없다. 직장에서 잘리니까 금귀걸이·
금반지를 팔아야. 살려면 금까지 강제 매도 → 20~30% 떨어졌다가 연준이 돈 풀자 금반등.

1970s 수치 — 미국 물가 14%, 은행 이자율 10%, 실질 금리 -4%. 은행에 두면 매년 4% 녹음. 금
사는 것 말고 답 없음. 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빨라 24배 슈팅 가능.

2008·2020 메커니즘 — ① 자산 가격 폭락 (주식·부동산 동반) ② 빚 갚을 현금 부족 (마진콜·
증거금) ③ 금도 강제 매도 (금이 나빠서가 아님) → 연준 QE → 금 금반등.

■ 스태그 vs 침체 — 금값 패턴

구분	1970s 스태그	2008·2020 침체
본질	내 돈이 녹는다	당장 현금이 없다
행동	현금 → 금 매수 폭발	살기 위해 금까지 매도
금값	조정 없이 10년 24배	20~30% 급락 후 V자 반등
1970s 실질 금리	-4% (물가 14%, 금리 10%)	—

12. 2026 = 어느 쪽인가

지금 2026년은 어느 쪽? 이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.

시나리오 ① — 이란 전쟁 빨리 종식 + 유전 밸브 정상 회복: 유가 안정 → 모든 자산 회복 + 금도 상승. 27년 또는 26년 말 경기침체 오면 금값 조정 가능.

시나리오 ② — 유가 안 잡힘 (전쟁 장기화 또는 밸브 열어도 생산량 반토막):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↑. 금값 일시 하락 후 빠른 V자 반등.

달러 신뢰 약화 결정적 증거 — 달러 인덱스: 우크라 전쟁 시 98→**110**. 이번 이란 전쟁 98→**100**, 휴전 시 98로 복귀. 석유 사려고 달러 사재기 났는데도 100밖에 못 감.

강사 시각 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 = 돈 녹는 공포 ↑. 금값이 떨어졌을 때 자산 일부를 금에 편입시켜 놓는 건 여전히 유효한 전략. 조정 시 매수 권장.

■ 달러 인덱스 — 같은 전쟁, 다른 반응

전쟁	직전	발발 후
우크라이나	98	110
이란	98	100 (휴전 시 98 복귀)
결론	—	달러 신뢰 약화 결정적 신호

13. 마무리 — 강사 시각

방위산업은 미국 단일 패권이 다시 강화되지 않는 한 **10~20년 호재**. 다만 주가는 선반영 — 단기 과열 시 레버리지 X, 분할 매수, 악재 시 집중. 이직·커리어는 적극적으로.

금은 자산 일부 편입이 항상 유효 — 달러 신뢰 약화 + 돈 녹는 공포가 금 투자 유효성의 주된 이유. 조정 시 매수 권장.

Q&A를 통해 금·방산업체의 미래를 정리했다. 안보 = 경제 시대와 위기의 종류별 금값 패턴 두 축을 종합한 회차.

방산 = 구조적 호재 / 금 = 자산 일부 편입

Q&A 4월 4주차. 노래하는 악어님 + 프린캡스님 두 질문에 강사가 답한 결 — 신냉전 시대 방산업계 구조적 호재 + 위기의 종류별 금값 패턴.

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. 다만 투자는 방위산업 주가가 이미 2~3년 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상승이 맞다 하더라도 분할 또는 장기 보유, 그리고 악재 때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— 강사 결론.

금은 자산 일부 편입이 항상 유효 — 달러 신뢰 약화 시대에 조정 시 매수 권장.

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. 다만 투자는 방위산업 주가가 이미 2~3년 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상승이 맞다 하더라도 분할 또는 장기 보유, 그리고 악재 때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.

다음 정규강의 — Part 4-3강

안보 = 경제 시대 본격 전개

본 회차의 신냉전 + K-방산 + 위기별 금값 패턴 골격 위에서 Part 4 본격 진입.

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&A 4월 4주차 회차(2026-04-27, parent: Part 4-2강) 콘텐츠 정리본이다. 강사 본인 정수 + 강의 자체 정량(K-방산 빅4·달러 인덱스·이란 드론 가격) 인용으로 구성. 외부 자료 보강은 본 회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다. 강사 본인은 가족 연관자가 있어 방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으며, 본 회차는 정보 제공 목적이지만 특정 종목 매수·매도 권유가 아니다.